



해외산업간호 정보

# '95 미국산업보건회의 (1995 American Occupational Health Conference)를 다녀와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  
조 영 숙

미국산업보건회의는 매년 1회 봄에 ACOEM (American College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과 AAOHN(Americ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의 공동주최하에 열린다. 금번 회의는 1995년 4월 28일 시작하여 5월 5일 까지 약 7일 동안 라스

베가스에서 진행되었다.

회의 기간 동안은 일요일도 휴무없이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회의(conference)와 주제별로 각각의 세미나가 이루어진다. 장소는 시내 Sands, Bally's, Harrah's, Tropicana 등 4개 호텔 컨벤션 센터이며 각 세미나에 따라 장소가 달라지므로 자신이 신청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선 일정표를 보고 장소를 옮겨 다녀야만 했다. 다행히도 라스 베가스는 호텔들이 밀집해 있어 걸어서 5분이면 어느곳이나 갈 수 있을 정도로 이동이 용이하였고 그

런 의미에서 라스베가스는 이런 종류의 세미나들이 이루어지기에 적합한 장소라 여겨졌다.

미국산업보건회의는 내용으로 볼때 지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의 성격이 강한 듯 하다. 우리 나라에도 산업보건 분야에 있어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신규교육과 정규교육 및 관련학회가 열리듯이, 산업보건 분야의 보수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강의와 토론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현 산업보건의 흐름과 중요도를 짐작케 하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산업의과대학학회와 산업간호학회가 한 자리에서 열리는 것은 두 분야 간의 밀접한 접촉과 상호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나 진행에 있어서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각각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각각의 고유한 영역을 교육시키고 있었다.

본인은 AOHC에 관한 정보도 없이 주변의 권유로 촉박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였기에 자세한 사정을 알 수가 없어 ACOEM 분야의 기초과정인 occupational medicine- basic segment I을 수강하였다. 이 과정은 산업보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나 초보자가 듣기에 적합한 일종의 신규교육과정과 비슷하였으며 이보다 좀더 깊은 내용은 segment II와 III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각 segment는 단계에 따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었으며 segment I을 수강해야만 segment II, III로 넘어갈 수 있게 하여 매년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었다. 참석자의 대부분은 산업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의사들이 대부분이었으나 그 외에도 산업장에서 근무하는 산업보건전문간호사나 산업위생사들도 있었다. 미국의 산업보건회의인 만큼 참가자 모두 국내인들이었으며 국외 참석자는 이번엔 본인과 함께 동행한 3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본인이 수강한 segment I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1) Introduction and Orientation (2)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3) Epidemiology, Biostatistics, and Data Interpretation (4) Surveillance and Medical Monitoring.



**미국 산업보건회의는  
내용으로 볼 때 지속교육의  
성격이 강하며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강의와 토론의 형태를 진행하고  
있어 산업보건의 흐름과 중요  
도로 짐작하게 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선택하여 각각의 세미나에 대한 참가비를 지불하고 들을 수 있으며 여러 분야를 총망라할 수 있을 정도로 각 분야에 걸쳐 많은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어서 미국 산업보건 분야의 현재 흐름과 연구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여러 분야 중 특히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야는 CTD(Cumulative Traumatic Disorder - 누적 외상성 질환)였으며 이 분야에 관한 세미나는 자리가 모자라 강의실을 옮겨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그 외에도 납이나 유기용제 등에 의한 독성 평가방법, 그리고 법적 보상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평가 분야에도 많은 사람이 참석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산업보건 분야에 있어, 각 대학마다 고유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 NIOSH(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 Health - 국립산업안전보건원)나 OSHA(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 산업안전보건성)에서도 수시로 수일에서 수주까지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어 언제든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많은 기회가 있다. 이는 산업보건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와 함께 그 수준을 짐작케 하기에 충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접 AAOHN 교육과정에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그에 대해 보고 느낀 점과 다음의 참석자들을 위해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몇가지 간단히 적을까 한다.

AAOHN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대부분 위탁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간호사가 직접 여러 분야의 강의를 맡아 진행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것이 가능할 정도로 그들은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이는 여러 면에서 매우 고무적이었으며 산업보건 분야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력을 투자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과 자원을 가진 미국이란 나라가 부럽기도 하였다. 비록 의사소통의 한계와 문화적 차이 등 여러 장벽이 존재하였지만 미국 산업보건의 규모와 흐름, 그리고 분위기를 익히기에 충분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

각종 강의와 더불어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은 포스터발표와 전시회이다. 특히 전시회에 참여하면 각종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최신 검사기 기들, 그리고 각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일정과 각종 저널, 또한 신간 서적까지 현장에서 구입이 가능하여 아주 좋은 기회라 여겨진다.

이 회의 일정 중 4일(4월 29일, 30일, 5월 1일, 5일)은 pre & post conference가 있는 날로서 이 동안에는 AAOHN 회원만이 참석이 가능하다. pre & post conference 이외에도 갖가지 주제의 세미나가 교실 별로 이루어지며 각자의 관심분야와 맞는 내용을 미리 신청하여 들을 수 있고 참가비는 각 세미나 별로 다르다.

참고로 참가비를 대략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conference registration fee(5월 2일~5월 4일)는 AAOHN 회원인 경우 full conference는 180달러, one day는 110달러 정도이며 비회원인 경우 full conference는 300달러, one day는 210달러 정도이다. 그리고 pre & post conference는 AAOHN 회원만이 참석이 가능하다. 각자 듣고자 원하는 세미나가 있다면 미리 신청을 하여 허가를 얻은 후에야 수강이 가능하며 fee는 full-day conference인 경우 125달러이며 half-day인 경우는 75달러 정도이다.



**AAOHN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대부분 위탁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간호사가 직접  
여러 분야의 강의를 맡아 진행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것이 가능할  
정도로 그들은 상당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프로그램을 알아야 듣고자 하는 세미나에 관한 내용을 보고 미리 신청할 수 있다. 팸플렛은 다음의 주소로 연락하면 즉시 송부하여 주므로 참고로 할 수 있으며 팸플렛에는 각종 정보와 더불어 참가신청서가 들어 있어 매우 유용하다.

*AOHC, 55 West Seegers, Road, Arlington Heights,  
Illinois 60005-3919  
(Phone) 708-228-6850  
(Fax) 708-228-6849*

기타의 정보는 AAOHN 사무실을 통해 얻을 수 있다.

*AAOHN, 50 Lenox Pointe, Atlanta,  
Georgia 30324-3176  
(Phone) 404-262-1162  
(Fax) 404-262-1165*

다음해의 AOHC는 1996년도 4월 26일에서 5월 3일까지 San Antonio에서 열리며 등록마감일은 대개 3월말까지 이므로 미리 팸플렛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참가신청서 양식에 맞춰 신청하면 되지만 기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등록할 수 있다. 현지 등록인 경우에는 듣고자 하는 세미나가 장소 등을 이유로 조기마감하는 경우가 있어 들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